

임시 이사회 회의록

- 개최일시 : 2016년 11월 28일(월) 13:00-14:30
- 개최장소 : 이랜드재단 회의실
- 총이사수 : 6명
- 출석이사 : 이경준 이사, 이태웅 이사, 윤형주 이사, 박영희 이사 이상 4명

□ 개회선언

▶ 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합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<제 1호 의안> 2017년 법인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 심의의 건

▶ 이경준 이사장 :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이랜드재단 2017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의 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정영일 사무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▶ 정영일 사무국장 :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. 2017년도 기부금수입 및 이월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예산을 수립하였으며, 기부금 수입 및 이월금이 확정된 이후 본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7년도 준예산 세입·세출 총 예산은 각 8,286,830천원 입니다. 세입예산은 기부금, 재산수입, 기타수입, 이월금, 상환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. 세출예산은 이랜드재단의 핵심사업인 '이랜드인큐베이팅'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이이이 사업별 예산 및 사무비, 재산조성비 등의 항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올해부터 확대된 장학금사업의 경우, 좋은교사 모임과 연계하여 기존 고등학생 중심에서 중,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멘토를 통한 멘토링활동으로 경제, 정서적 지원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.

▶ 박영희 이사 : 내년 이랜드클리닉 상환금은 어떻게 되나요?

▶ 정영일 사무국장 : 이랜드재단의 수익사업인 이랜드클리닉에 출자한 금액으로 올해 3억5천만원, 내년 도에는 2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환금을 늘려갈 계획입니다.

▶ 윤형주 이사 : 장학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고 필요에 꼭 맞는 도움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▶ 이태웅 이사 : 2017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016년을 잘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, 잘하는 점은 더욱 강화하여 사용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수혜자가 최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

랍니다.

▶ 이경준 이사장 :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?

▶ 이경준 이사장 : 없으시면 2017년 법인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 심의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. 이에 동의하십니까.

▶ 참석이사 전원 : 동의합니다.

▶ 이경준 이사장 :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,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▶ 이경준 이사장 : 본 건 '2017년 법인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 심의의 건'이 결의되었습니다.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.

▶ 이경준 이사장 :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,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2016년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.

▶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
폐회시각은 14시 30분

2016년 11월 28일

재단법인 이랜드재단

이사장 이 경 준 (인)

이 사 이 태 응 (인)

이 사 윤 형 주 (인)

이 사 박 영 희 (인)